청양담소

마 을 공 동 체 신 문

발행처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보 : cymaeul@naver.com
만든 사람 : 청양군 마을미디어활동가(기자단·영상기획단)
제13호 발행일 : 2023년 11월 20일

제 13 호
2023년 겨울호

상상으로 그린 ‘겨울 축제’

작가소개

청양의 가장 큰 겨울축제, 알프스마을의 얼음분수 축제를 상상하며 중묵리의 이혜민(23)님이 그림을 그려 보내왔다. 이혜민님은 블로그를 통해 청양담소를 접하게 되었고, 평소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그리던 그림을 마을 신문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겨울호에 어울리는 겨울 축제의 모습을 그려 기고하였다.

– 청양군 운곡면 중묵리 이혜민(23)

지면안내

1면 겨울 축제
2~3면 학교탐방, 동영중학교
4면 마을축제, 화성면/간직하고 싶은 사람
5면 인터뷰, 푸드플랜 허명옥/
오룡골사랑방 편집후기
6면 독자기고 글·사진/청양금강구기자축제(영상)
7면 ‘2023 청양담소’편집후기
8면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소식

학교탐방 : 동영중학교 〈농촌 체험 활동〉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진로 적성 탐색의 장을 마련

우리는 포도 농군들!!!

Q 동영중학교 '농촌 체험 동아리'에 대해 소개 부탁합니다.

농업의 새로운 생산·소비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유기농업 실천을 통해 녹색 식물을 직접 기르고, 돌봄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녹색 식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또한 유기농 포도 재배를 통해 유기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학습입니다.

특히, 직접 가꾼 포도 수확물을 판매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Q 처음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4월 7일(금) 오전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 소재한 '청양포도공주농원'에 학생과 선생님은 장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팔토시도 하고 모였습니다.

그날은 마음이 몹시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농촌 체험 활동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포도 재배 영상 자료 화면을 보면서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학생들은 앞에 놓인 나무 푯말에 본인의 포도나무 이름 명명식을 했습니다. 이제 가을 수확 때까지 함께 할 포도나무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름표를 달아 주면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들 얼굴에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언제 또 가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파란 하늘만큼이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포도나무 이름

와우! 만나요!!!

제호이야기 청양담소

청양담소는 웃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청양을 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양의 이야기를 담았소'의 줄인 말로 청양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주민의 소리를 담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신문으로 마을기자단이 만들어갑니다.

청양담소는 계간지로 2023년 04월 봄호, 07월 여름호, 09월 가을호, 11월 겨울호로 발행합니다.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청양담소는 주민들의 기고도 받고 있으니 메일(cymaeul@naver.com)또는 전화(041-943-99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 주기

판매 활동

청양 군청을 방문하여 판매 수익금을 전달

Q 학생들은 주로 어떤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했나요?

처음 포도 농원을 방문하는 날 조금은 낯설었지만, 학생들은 금방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포도나무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본인의 포도나무에 이름을 붙이면서 아마 더욱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의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자 매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순을 잘 관찰하면서 적당한 크기의 포도송이 결실을 위해 순을 따주는 활동을 하고,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벌레도 잡아 주면서 점점 커 가는 포도 열매를 보는 것은 무척 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포도송이가 어느 정도 커지자,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지 씌우기 작업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었지만 농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포도는 더욱 아름답게 영글어 가고 있었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하는 날 학생들의 표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얻기 때문 이었습니다. 포도상자를 준비하고 수확한 포도를 담으면서 아이들은 계속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포장 작업을 마친 포도는 10월 14일(토) '청양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구-고추 문화 마을)에서 열린 '비건 페스타' 한마당에서 방문한 분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판매하는 날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금이 마련되었고, 수익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학생회 회의 결과 청양군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분 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수) 오후에 청양 군청을 방문하여 군수님과 소중한 농촌 체험 활동에 대해 담소를 나눈 후에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게되었습니다.

Q 앞으로 농촌 체험 활동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 학교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과 지역 사회에 대한 애향심 고취, 그리고 학생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공감 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에 '농촌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농촌 지도사로 활동하는 분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많은 질문을 통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체험을 마치면서 학생들 모두는 내년에도 체험 활동이 계속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농촌 지도사란?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농·어촌 생활의 의·식·주 생활뿐만 아니라 소득의 확대, 과학적인 농촌 사회교육 등을 위한 지도관리 및 계몽, 농촌 복지와 문화 수준의 향상, 능력 있는 농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 · 어촌의 지역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스스로 도모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배양하는 실천적인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농촌 지도사는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실제의 대우 상황은 실질 수당, 호봉 등을 감안하면 타 부처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위탁 교육과 선진 영농 기술을 익히도록 해외 유학 및 해외 파견 기회를 많이 마련하므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계속되는 복지 향상으로 많은 응모자가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정돈 국어교사〉

마을축제: 화성면

화성마을음악회

2023년 제1회 화성면 주민총회를 앞두고 제11회째를 맞는 '화성마을음악회'가 열렸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식전 공연으로 화성중학교와 충청 웃다리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화성어린이집 율동과 합천초의 합창, 그리고 화성중학교 색소폰 연주가 이어지며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마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동호인, 마지막으로 초대 가수 박세옥(MBN 보이스트롯 우승자)의 멋진 선율이 대미를 장식했다.

여러 부스를 운영했는데 특히 오후 늦은 시간으로 기온이 떨어져 뜨거운 어묵국물과 군밤이 인기가 많았고, 다양한 먹거리와 3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활기를 더 했다.

특히 화성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첫 마을 축제라서 감회가 새로웠다. 식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의제가 총 4가지로 우리 지역 역사 문화 자원발굴, 보행기 걷기 사업, 노약자 찾아가는 서비스, 빈 농약병 수거에 주민들이 직접 표를 붙여서 순위를 정했다.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김종성(65) 화성면 주민자치회장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민자치를 하면서 힘든 점이 소통의 어려움이라서, 의견을 듣고 사업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고 70리 정도의 화성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음악회는 청양군 행사와 겹쳐서 부득불 날짜를 뒤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새마을회의 국수봉사로 참가자들 속을 든든히 하였다. 면민의 날을 화성중학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마실터가 조성이 돼 마음껏 장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다.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향민이 오는 추석날로 변경해서 더 많은 지역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계셨다. 10월에 청양군 축제가 몰려 있어서 좋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돌아가는 길에, 손에 들려준 봉투 속엔 빵과 먹거리가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신 흔적이 보인다. 오전에는 평생학습문해교육 한마당을 보고 즐기고, 오후에는 화성에서 마을음악회를 다녀왔다. 다양한 축제와 방식으로 더욱 활기찬 청양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든다.

〈서종필 마을기자〉

간직하고 싶은 사람

〈김남선 마을기자〉

작은 인연으로
채워가는 인생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며

아침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답해 주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고이 간직하고 싶다.

푸드플랜 출하농가소개

청양 마늘은 내가 다 잡고 있어~

허명옥씨는 청양에 정착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30년동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던 허명옥씨는 심한 두통으로 인해 업무를 그만둔 후 귀농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빈집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알아보던 중 공주에 눈길이 갔고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허명옥씨는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 쉴 줄 아는 거야"라며, 쉬는 동안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농작을 하여 로컬푸드에 납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약 7년간 로컬푸드를 판매하던 중 주변인들의 추천을 통해 청양으로 와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청양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다 현재의 집을 구하게 되었고 청양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청양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주 로컬푸드를 이용하던 허명옥씨는 매장 직원에게 대전에 있는 직매장을 소개받았다. 청양의 농가들만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허명옥씨는 바로 푸드플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작하게 되었다.

이미 수년간의 재배를 통하여 노하우가 있던 허명옥씨는 농산물이 비는 시기를 노렸다고 한다. 다른 농가에 비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늦게 작물을 심어 농산품 판매가 비는 시점에 수확 후 판매하는 등 비슷하거나 같은 상품이 한 번에 몰려 과잉되는 시기가 아닌 부족할 때를 노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열심히 푸드플랜 활동을 하였다.

허명옥씨의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니 상추, 샐러리, 블루베리, 당근 등 정말 다양한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마늘 아줌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마늘밭이 제일 크다고 한다. "청양 마늘은 내가 다 잡고 있어~"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마늘 재배에는 도가 텄다고 말했다. 직접 가서 보니 정말 크고 넓은 밭에 마늘이 잔뜩 자라고 있었다. 특히 마늘쫑이 허명옥씨의 효자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꾸준히 농산품을 납품해본 결과 청양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알차고, 재단을 통해 납품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농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으며, 지역을 살리자는 의미가 너무 좋다고 생각 했다고 한다. 청양은 자신이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실제로 허명옥씨는 통합 급식팀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전 직매장에도 농산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많은 일에 참여하여 힘들 법도 하지만 농민들이 더 편하고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점점 발전해나가는 것이 보여 즐겁다고 말한다.

특히 오랜 기간 재단 직원과 소통하다 보니 이제는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류가 좋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직접 모든 곳을 돌며 납품해야 하는 부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도록 재단 직원이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혹은 부족한지에 대해 알려주면 준비하여 항상 두는 곳에 내려둔다고 한다. 농산품을 어디에 둔다는 말이 없어도 알아서 가져가고 확인하여 연락을 주는 등 재단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따스했다고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허명옥씨가 가진 꿈도 들어볼 수 있었다. 10년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귀농·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농촌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찻집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농촌 마을에 예쁘게 집을 지어 놓고 적응하지 못해 결국 떠나 폐허가 되어버리는 곳을 보며 마음이 쓰였고, 본인의 경험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허명옥씨의 따스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서한빈 마을기자〉

'오룡골사랑방' 편집후기

그동안 오룡골 식구들과 즐거운 일도 아픈 기억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등을 어루만지며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풍경과 함께 나눈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자 마을신문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성기연 마을기자〉

독자기고

그리운 옛날이여~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 즈음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을 한다고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주고 새벽 5시만 되면 국민체조로 아침을 깨웠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손으로 만드세” 매일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늦잠 자는 사람 없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다. 어른들은 괭이와 삽을 들고 마을 길도 넓히고, 산림녹화사업 한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다. 어린 자녀들까지 빗자루 들고 마을길도 쓸고 호미로 꽃을 심었다.

게다가 쌀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절미운동 한다고 부뚜막에 조그마한 단지 하나를 놓고 매 끼니마다 쌀 한 숫가락씩 모아서 반상회날 가지고 나가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했다. 마을길 넓힌다고 내 땅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었던 생각이 난다. 배곯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힘든 역경을 참았다.

동네에 생일을 맞은 어르신이 계시면 이웃끼리 음식도 나누어 먹고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음식도 나누어 먹었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려 본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던 그 아름다운 풍속은 언제부턴가 사라져서 그 시절이 마냥 그리울 수가 없다.

소로 논을 갈고 못줄을 당겨 논 한 배미에 30명씩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공동모내기를 했는데, 요즘은 사람 둘이서 이앙기로 하루에도 몇십 마지기씩 심으니 모내기 밥은 고사하고 사람 구경조차 할 수가 없다. 하루 품삯을 후하게 준다고 해도 농사일이 힘들어서 젊은이들 도움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 옛 풍속이 사라지는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이웃 간의 정이 무엇인지 요즘 아이들은 모르고 산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의 안타까운 사건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난다. 그 감정의 표현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웃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른을 보면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아는 세상, 다른 사람에게 배풀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안숙자-정산면〉

너는, 누구니?

하얀 꽃으로 보면 억새요, 냇가에서 자란 것으로 보면 갈대다. 물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식물인 갈대는 주변의 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보호한다. 산이나 들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억새도 환경적응력이 뛰어나다. 줄기에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는 유망 바이오에너지 작물이다. 백세천에 솜처럼 꽃을 피운 식물은 물억새로, 가는 계절을 눈부시게 한다.

〈박수행-남양면〉

영상으로 만나는 '청양담소'

청양군 마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통해 발굴된 박정기 마을활동가가 제작했다. 대한민국 첫 구기자 재배지인 금강에서 진행된 구기자 축제의 시작과 끝을 생생하게 담았다. 영상은 QR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편집후기

서한빈 마을기자

2023년 입사 후 처음 편집위에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을 마무리하는 겨울호가 나왔습니다. 청양담소를 제작하며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청양담소를 준비하여 발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한 가을 그리고 마지막 겨울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종필 마을기자

소소한 마을 소식을 전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편집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겨울호라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는 기분입니다. 올 초 혹독한 병마와 싸우면서 나이가 들어감을 체감했는데 모두 수고했고 '앞으로 더 잘될 거야!'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임정옥 마을활동가

얼떨결에 들어오게 된 청담소 편집위원회.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곱고 따뜻한 청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영상 기사도 올려보고, 그림도 기고해보고, 행복한 경험에 시간도 감사했습니다.

전귀정 마을활동가

때로는 농사일에 바빠 취재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취재 정리가 더디게 늘어져 애끓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사람 사는 향기 그윽할 때 보람을 느끼었고,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청양담소 편집위원 활동이었습니다. 나를 성찰하게 합니다. 많은 분이 마을기자 활동을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진환 마을기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현관 앞에 놓인 청양담소를 보며 이번 호는 어떤 이야기가 실렸을지 기대하곤 했었습니다. 어느덧 잊혀진 계절을 지나 올해 마지막을 앞두고 있네요. 자극적이고 화려한 컨텐츠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청양담소는 어머니의 된장국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매력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청양담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기에 너무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김남선 마을기자

오늘도 행복하세요. 세월의 다리를 건너고 건너오니 늙음이 머물고 뚜벅뚜벅 걸어온 지난 세월 참 많이도 걸어왔네. 많은 세월을 걷다 보니 좋은 인연도 만나고 기분 좋은 아침도 맞는다. 우리내 인생사 어디서 멈춤할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안위를 묻는 이가 있으니 일상의 작은 행복이 아니던가. 우리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강다솔 마을기자

청양담소를 함께하면서 기존에 밟아왔던 마을공동체신문의 길을 혹여나 해치고 있진 않을까, 많은 자책을 했던 2023년이었습니다. 길을 헤맨다고 생각했을 때는 선배기자님들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빌려 저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청양에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2024년에도 청양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글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청양담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2023년도 청양군 공동체한마당 프로그램

본 행사

시 간		프로그램
상시		- 사업영역별 성과공유
		- 현장이벤트
		- 포토부스 운영
10:00 ~ 11:00	60′	- 식전공연
11:00 ~ 11:05	5′	- 개회선언
11:05 ~ 11:15	10′	- 내빈소개 및 축사
11:15 ~ 11:25	10′	- 식전 이벤트
11:25 ~ 11:30	5′	- 영상시청
11:30 ~ 11:50	20′	- 시상식
11:50 ~ 12:00	10′	- 기념사진 촬영
12:00 ~ 14:00	160	- 사업영역별 성과공유

연계 행사

일 시		프로그램	장 소
11. 1. ~ 11. 17.		- 소통홍보 온라인 행사	SNS
-	-	- 사회적 경제인의 날	-
-	-	-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
11. 9.	11:00 ~ 14:00	- 삼삼오오 발표대회	와유1층 세미나실
11. 15.	11:00 ~ 15:30	- 마을미디어 활동가 간담회	와유1층 세미나실
11. 21	10:00 ~16:00	- 푸드플랜 전진대회	문화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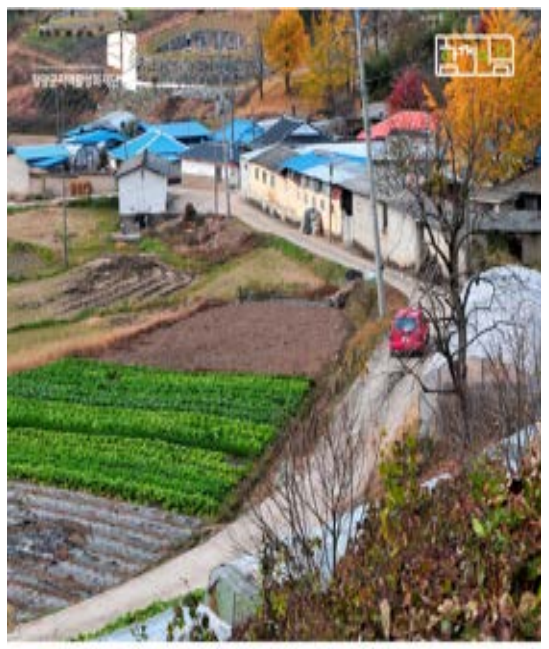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재단 ESG 경영 워크숍 개최

'지역을 살리는 경영, 지역과 하나되는 재단'

재단은 10월 30일(월) 재단 ESG 경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재단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이 날 워크숍은 환경(E), 사회(S), 투명경영(G) 실천을 위한 8개의 선언이 담긴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이플아토 허지혜 대표의 〈비건 농산물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탄소절감을 위해 〈그린터치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그린터치 캠페인에는 총 12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총 1360시간을 절전하고 69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은 전사적 ESG 경영 추진에 관심도를 제고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앞으로도 재단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CCF_CHEONGYANG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재단 인스타그램이 열려요

알려드립니다